

# 돌봄서비스가 노인 삶의 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지역 비교를 중심으로

임복희\*  
박윤환\*\*

##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돌봄서비스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경기도 31개 시군 인구규모에 따라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로 구분하여 지역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해 2021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지역주민 욕구조사)의 65세 이상 8,529가구의 자료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지역별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들을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경제적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 교육수준, 돌봄비용 지원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택점유형태, 주거형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개인 위생관리 지원 서비스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시의 경우에는 경제적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 돌봄비용지원, 노인가구원수가 정(+의 영향을, 주거형태, 주택점유형태, 가사활동지원 서비스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도시에서는 경제적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 연속거주기간,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노인가구원수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연령과 교육수준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노인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서비스의 지역 간 차이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 돌봄서비스, 노인 삶의 질, 경기도,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지역별 비교

## I. 서론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를 지나 2025년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이 전망되는 가운데 노인 돌봄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통계청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18.4%인 950만명이며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sup>1)</sup>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도달

\* 제1저자

\*\* 교신저자

1) 국제연합(UN)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된다.

연수 또한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에 비해 한국은 7년에 불과하다. 또한 65세의 기대여명은 21.5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남자는 1.4년, 여자는 2.4년 더 높은 수준이다(통계청, 2023).

노인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돌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는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잡지 못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조경옥 외, 2021). 인구의 5분의 1이 노인인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2년 앞둔 현 시점에서 노인 돌봄 문제와 노인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는 문제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국민의 삶은 정부의 공공 서비스 정책과 관련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을 통해 개개인의 삶의 질이 형성되기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사회 정책적 논의에 있어 주요한 주제이다(김재희, 2023).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 2020년 고령자통계자료에 따르면, 조사응답자의 49.9%가 부모 부양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난 10년 동안 12.1%가 증가한 결과이다. 또한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장기요양 인정자 비중은 10.3%로 전년 대비 0.6% 증가하였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이다. 체감도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수행 주체자로서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 및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의 설계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 관련 연구는 대부분 전국적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돌봄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함의를 제시하는 데 다소 제한된 측면이 있다(김재희·김희연, 2020).

노인 돌봄서비스는 제공받는 장소에 따라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로 구분되는데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감소 추세이나,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전년 대비 38.4%가 증가하였다(통계청, 2022). 이는 선호하는 노인 돌봄서비스의 제공 방식이 시설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오래 전부터 거주시설에 입소하는 대신에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도록 하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시행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총 거주 인구 및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이다. 2023년 9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626,339명으로 국내 총인구 51,370,001명의 26.5%가 경기도에 살고 있으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89,181명으로 전국 9,611,193명의 21.7%에 해당된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또한 경기도에 속한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수원시(1,195,718명), 용인시(1,077,224명), 고양시(1,076,376명) 등 100만 이상 인구규모의 특례시와 연천군(41,705명), 가평군(61,976명), 과천시(81,332명) 등 인구규모가 작은 도시가 공존하여 시·군 간 인구 격차가 크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규모가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이며 기초자치단체 간 인구 격차가 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인 삶의 질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노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또는 돌봄서비스 이용경험과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소수의 지역 간 비교 연구에서도 돌봄서비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인구규모에 따른 지역별 노인 돌봄서비스와 삶의 질 만족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인구규모에 따라 50만 이상의 대도시, 20만 이상~50만 미만의 중도시, 20만 미만의 소도시<sup>2)</sup>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돌봄서비스 수준과 노인 삶의 질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하고,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서비스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단위 수준을 측정함에 있어 돌봄서비스의 이용경험 뿐 만 아니라, 돌봄서비스의 인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의 세 가지 요소를 균형있게 반영하여 돌봄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시행되는 자치단체인 경기도를 중심으로 돌봄서비스가 노인 삶의 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고, 인구 규모에 따라 노인 삶의 질 만족도에 미치는 돌봄서비스의 주요한 영향요인을 비교함으로써 지자체별로 접근 가능한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돌봄서비스와 노인 삶의 질 만족도는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노인 돌봄서비스와 노인 삶의 질 만족도와와의 관계는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 II. 이론적배경

### 1. 노인 돌봄서비스

#### 1) 노인 돌봄서비스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주거, 고용, 환경 등을 폭넓게 포함하며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총칭한다(보건복지부, 2023). 김재희 등(2020)은 노인 돌봄서비스를 자립적인 생활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돌봄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노인 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의 대도시 특례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로 분류하였다. 인구가 20만 명 이상인면서 50만 명 미만인 지역은 중도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군을 포함하는 인구 20만명 미만의 지역은 소도시로 구분하였다(고찬우 외, 2023).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공적 돌봄은 대표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등이 있다.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65세 이상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과 건강을 유지하고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이다(보건복지부, 2023).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는 2020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외의,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비롯하여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등 사업별로 파편화되어 제공되던 서비스를 지역단위에서 노인의 욕구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안수란 외, 2022).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방문형(재가서비스)과 시설 및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통원형(시설서비스)으로 제공되며, 서비스의 종류는 안전과 안부를 확인하는 안전지원 서비스, 사회관계 향상프로그램 등의 사회참여 서비스, 신체적 건강을 위한 교육과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의 생활교육 서비스, 이동 활동 지원과 가사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보건복지부,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의료수급권자이다(조경옥, 2021). 급여의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받고, 재가급여는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목욕·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3).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또는 천재지변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 2023).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 인정 기준의 엄격성은 요양욕구가 있지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돌봄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가지고 있다. 즉,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나 수단적 일상생활 능력을 기준으로 25.3%인 203만명이 잠재 돌봄 수요자에 해당하지만 2019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인원 계획은 121.5만 명에 지나지 않아 잠재 돌봄 수요자의 40.1%는 공적 돌봄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남훈·하인혜, 2020). 또한 등급 신청을 한 노인 가운데 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예산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에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따르고(석재은 외, 2017) 이로 인한 노인 돌봄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할 수 있다.

한편, 2019년부터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정책(보건복지부, 2020)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지속되지 못하고 2022년 종료되었다.<sup>3)</sup>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자산조사 없이 욕구에 기반하여 돌봄이 필요한 자는 누구나 대상이 되는 보편적 접근을 지향하며 케어안심주택 등의 주거서비스, 방문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재가돌봄서비스 등(보건복지부, 2020)을 지원하였다. 경기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노인분야에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원시, 시흥시, 양평군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노인돌봄사업 중 재가 돌봄서비스로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응급안전안심 서비스가 있다. 시설 돌봄서비스로는 양로 및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는 노인 주거·의료 복지시설 운영, 노인장기요양 시설 지원,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이 있다. 그리고 돌봄 인력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 사업 등이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2011년부터 노인성 질환이 있는 저소득 및 독거 노인에게 주중 뿐 만 아니라 야간과 주말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재가노인의 돌봄기본권 강화를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기능을 경기도형 노인기본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설정하여(황경란, 2022),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노인(등급외자)을 포함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기도 내 모든 노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은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표 1〉 경기도 노인돌봄사업

사업명	내용 및 대상	사업명	내용 및 대상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 지원	65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요양시설 입소 또는 재가서비스 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세 이상 돌봄필요 노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급외자 포함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중위소득 150% 이하 우선 선정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기지 설치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급판정 노인, 일반노인(유료)	노인 주거·의료 복지시설 운영	노인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시설 지원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교육비 지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 교육, 권익옹호 등

자료: 황경란·최성은(2022, p.1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종료된 이후 2023년 7월부터 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지원, 주거 등 돌봄서비스와 재가 의료서비스 연계를 통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총 12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이며 경기도에서는 부천시와 안산시가 참여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 2) 노인 돌봄서비스 인지,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사의 관계

사회보장서비스는 주민의 복지 욕구 및 지역 복지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핵심으로 한다. 누가 어떤 욕구를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지역 차원의 집합적 문제로 표출되는지, 문제의 위기도와 심각성은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할 때 대안 모색이 가능해진다(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2018). 그런 의미에서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한 욕구 및 이용경험과 이용의향의 파악은 중요하다.

노인복지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에게는 자신에게 필요한 욕구 및 문제의 해결 수단을 알고 있고 개인적 대응책을 찾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노인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정책 당국 측면에서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얼마나 홍보가 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지서비스 제도에 연계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진재문·김수영, 2016). 이용 의향은 개인이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정도나 인식을 의미하며 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고 개인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게 하는 의미를 가지는 정보이다(김재희·김희연, 2020). 돌봄서비스 이용의사를 조사하는 것은 서비스 종류별 수요를 파악하고 서비스의 주 수요자가 될 노인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이미애, 2005).

서비스 인지, 이용 경험과 이용 의향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돌봄서비스를 더 많이 인지하는 노인일수록 서비스 이용 의향과 이용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김은정·이신영, 2010; 문용필·이준영, 2016; 이재모·이신영, 2006; 임연옥·윤현숙, 2009).

지역사회 노인대상 간호사 방문형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 연구에서는 사회활동을 하는 그룹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서비스 이용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소영·장숙량, 2022). 노인서비스 유형별로 이용 의향에 따른 서비스 이용경험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단기보호를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이용의향이 있는 노인집단의 서비스 이용경험 있음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재희·김희연, 2020). 노인들의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이용 예측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복지관 이용이 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전병주·한애경, 2014) 등 과거 관련 서비스의 경험이 서비스 이용 의향과 선택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 서비스 이용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에 향후 서비스 이용 의향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경우 강한 서비스 이용 의사를 밝힌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대부분의 이용 경험자들은 향후에도 서비스를 지속하여 이용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비스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이용할 의향이 없는 경우가 서비스 이용 경험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서비스 유형별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으며, 서비스 인지가 있으면 경험으로 이어지고, 경험을 한 경우 향후 이용 의사 또한 높아졌다(박세경 외, 2011).

사회서비스 인지 및 이용 의향과 거주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서울시 거주

자가 광역시, 도 거주자에 비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문용필·이준영, 2016), 중소도시 거주 노인의 요양시설 이용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농촌에 거주할수록, 노인 여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이용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이기영 외, 2006).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읍, 면에 거주하는 노인일수록 일차적인 건강관리시설인 보건소나 노인 전문병원에 대한 적극적 이용의사와 인지도를 보였다(강유진·강효진, 2005). 또한 노후보장제도 기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노후보장제도로써 소득보장제도 기대와 의료보장제도 기대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현우, 2023), 이는 노후보장제도의 기대를 높게 인식하는 고령자일수록 삶의 만족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서비스의 인지, 이용 경험, 향후 이용의향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돌봄서비스별로 합산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인지·경험·의향 수준'으로 정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2. 노인 삶의 질

### 1) 삶의 질의 개념

'삶의 질'이란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고 개념 또한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사람들의 행복 또는 복지를 의미하는 용어로 행복감, 안녕감, 만족도, 생활만족도 등의 개념들과 함께 사용되어 왔다(김미령, 2012; 류주연·선민정, 2022).

삶의 질 개념에 대한 논의는 크게 객관적 접근과 주관적 접근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객관적 삶의 질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상태,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과 같이 한 사회 또는 국가 내에서의 개인의 삶과 관련된 객관적 조건 또는 객관적 통계치를 통해 삶의 질을 설명한다(Blomquist et al., 1988; 이석환, 2021에서 재인용). 주관적 삶의 질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만큼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한 주관적인 만족감 또는 안녕감 등의 주관적인 판단을 삶의 질로 정의한다(Schalock and Verdugo, 2002; 이석환, 2021에서 재인용).

이가옥(2000)은 노인 삶의 질 지표에서 7가지 영역인 건강, 물리적 복지, 경제활동, 가족관계, 주거, 교육, 여가 활동에 대한 노인의 욕구 충족 정도라고 하였다. 김애련(2001)은 건강, 사회적 자원, 심리적 자원, 경제·환경적 요인에서의 심리적 복지감을 삶의 질로 정의하였다. 윤혜숙·윤가현(2003)은 삶의 질을 연구하면서 건강, 가족, 대인관계, 살아가는 방식, 일, 여가,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의 8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민경진(2007)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을 삶의 질로 해석하였고, 윤기윤(2007)은 주관적 안녕 상태를 삶의 질로 보고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삶의 질로 정의하였다. 송건섭(2007)은 한 공동사회의 주민들이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과 행

복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순돌 등(2016)은 개인의 삶에 전반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현실적 욕구 충족 여부에 따라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석환(2021)은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만큼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한 주관적인 만족감 또는 안녕감으로 주관적 접근을 설명하고 있다.

김상균 등(1996)은 삶의 질이란 시대와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절대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한 사회의 경제 사회의 발전 수준과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과 관습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삶의 질의 개념을 정의 내리기 위해서는 사회성원들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들의 변화에 대하여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느끼고 판단하는가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주관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객관적 차원에 초점을 맞춰 개인의 주관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측정 가능한 지표 중심의 시각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비교 연구에 용의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별적인 특정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김재홍·이은우·이재기, 1998). 객관적인 지표들이 삶의 질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 객관적인 조건들의 합은 개인이 느끼는 삶 전반에 대한 만족감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통계청, 2023).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보다는 개인이 느끼는 현재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인 주관적인 삶의 질로 접근하고자 하며 '삶의 질 만족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 2) 노인 삶의 질 만족도 선행연구

노인 삶의 질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노인 삶의 질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강종필·윤지영, 2017; 김태현·한은주, 2004; 전지원, 2005; 정순돌·이선희, 2011; 최현석·하정철, 2012; 한형수, 2008).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 삶의 질 만족도와 성별과의 관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삶의 질이 더 높게 나온 연구(김혜연, 2020; 심수진, 2018; 정영해·조유향, 2014)와 여성이 높게 나오는 연구(성기옥, 2016; 허준수, 2004)가 있다. 연령에 있어서는 노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이 낮아진다는 연구(김혜연, 2020; 정순돌·성민현, 2012)와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질도 높아진다는 연구(허원구, 2017)와 함께 연령과 관련이 없다는 연구(김정엽, 2010; 박기남, 2004; 허준수, 2004)도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김정엽, 2010)와 교육수준이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허준수·조승호, 2017)도 있다. 가구 형태도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1인 가구에 비해 2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났다(심수진, 2018; 임선아, 2016). 주택소유형태는 전·월세보다는 자가 소유일 경우, 주택이 편리할수록 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은택·정효미, 2015; 김진훈, 2019; 남기민·남현정, 2013; 전병주·최은영, 2015). 경제적 수준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구철희, 2015; 강종필·윤지영, 2017), 노후 주요 소득원인 사회보장소득과 삶의 질 간의 관계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윤정·이상진, 2017; 주경희

외, 2015; 최요한, 2018).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돌봄서비스의 이용은 노인의 삶의 질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강은나, 2017; 최정민·이수애·박민서·권구영, 2011; 전명진·문승원,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또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권현정, 2011). 가사지원 서비스의 경우에는 정서적 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손화화·정옥분, 1999)와 재가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윤기윤, 2008),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안은선·송순만, 2017)가 있다.

한편, 노인 삶의 질 만족도와 지역간 비교와 관계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권인혜(2022)는 수도권 도시, 비수도권 도시, 농촌의 정주공간 유형별로 복지영역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도권 도시 유형의 경우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삶의 질 만족도가 낮았고, 행정구역 면적당 노인여가복지 시설수와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 권역내 인구비는 삶의 질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도시 유형에서는 유의한 영향 요인이 없었고, 농촌 유형의 경우 인구규모의 음의 효과만 확인되었다. 송건섭(2007)은 지역주민 복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광역시, 자치시, 자치군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에서 각 도시간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광역시의 경우 소득 및 소비생활, 교육, 주거생활이, 자치시는 재난구호여건과 직장생활이, 자치군은 직장생활과 소득 및 소비생활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승환·윤동성(2006)은 농촌·어촌·도시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연구 결과에서는 농촌지역 노인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어촌 노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일수록,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노인의 경우 독거노인들이, 동거하는 자녀와의 만남 빈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삶의 질 만족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소수의 지역 비교 연구에서는 돌봄서비스가 노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인구규모에 따른 지역별 노인 돌봄서비스와 삶의 질 만족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 조사(지역주민 욕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경기도 인구규모에 따른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지역에 따라 돌봄서비스 인지·경험·이용의향 수준과 노인 삶의 질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하고,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서비스가 무엇인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2021년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지역주민 욕구조사) 원자료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지역사회보장조사(지역주민 욕구조사)<sup>4)</sup>는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 및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 지역사회보장 실태진단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sup>5)</sup> 수립의 실증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이다(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2018). 2021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가구 수 기준 1%에 해당되는 50,610가구를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는 이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15,844가구 중 노인 응답자 8,529명의 데이터를 최종 선정하였다.

#### 2. 변수의 측정

#####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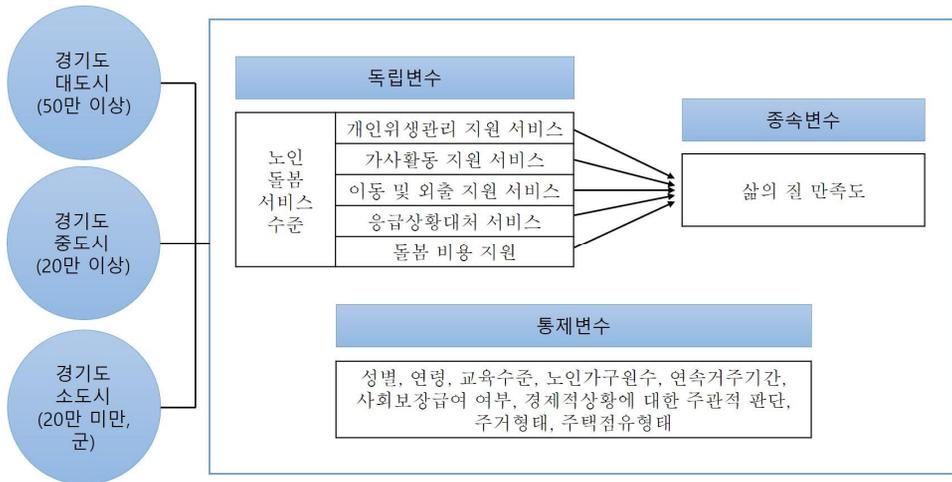
본 연구는 돌봄서비스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경기도 31개 시·군 인구규모에 따라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로 구분하여 지역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도출한 인구사회적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노인가구수, 사회보장급여 여부, 경제적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 주거형태, 주택점유 형태)을 통제변수로, 노인 돌봄서비스(개인위생관리 지원 서비스,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돌봄비용 지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종속변수인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35조 제7항 :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35조 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노인 삶의 질 만족도'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지역주민 욕구조사)'의 설문문항 중 현재의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매우 불만족=1'부터 '매우 만족=5'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다. 값이 클수록 삶의 질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독립변수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사회문제 해결의 개입이 필요한 대상을 파악하고 사회보장 서비스 수요를 전망함으로써 지역의 사회보장부문 정책 기획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문항은 노인 돌봄과 관련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이나 서비스의 인지,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에 관해 묻는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①개인위생관리 지원 서비스(집안일, 식사준비, 생활필수품 구매 등), ②가사 지원 서비스(집안일, 식사준비, 생활필수품 구매 등), ③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이동 및 외출 시 도움), ④응급상황 대처 서비스(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건강 관련 응급상황의 대처 등), ⑤돌봄비용 지원(노인 가구원 돌봄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지역단위 수준을 측정함에 있어 돌봄서비스의 인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의 세 가지 요소를 균형있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노인 돌봄서비스 수준 지표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측정하였다. 즉, 각 서비스별 인지 여부 '없음=0', '있음=1', 이용 경험 여부 '없음=0', '있음=1', 향후 이용의향 여부 '없음=0', '있음=1'를 부여하여 합산 값을 노인 돌봄서비스 인지·경험·이용의향 수준 지표로 사용하였다. 값이 클수록 각 돌봄서비스 수준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노인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확인된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노인가구원수, 사회보장급여 여부,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 주거형태, 주택점유형태, 그리고 연속거주기간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별은 ‘여성=0’, ‘남성=1’으로, 노인가구원수는 ‘노인 1인=0’, ‘노인 2인 이상=1’로, 사회보장급여 여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 급여 및 주거·교육 급여 해당 여부에 따라 ‘비사회보장가구=0’, ‘사회보장가구=1’로, 주거형태는 ‘단독주택 및 아파트=0’, ‘그외 주거형태=1’, 주택점유 형태는 ‘자가=0’, ‘자가 외=1’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조사연도인 2021년을 기준으로 연령은 ‘만 나이’와 ‘현 지역 연속 거주기간’은 실측치를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1’ ~ ‘대졸 이상=6’으로 값이 클수록 학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적상황은 설문문항 중 귀댁의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대해 ‘매우 어렵다=1’부터 ‘매우 여유롭다=5’까지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여 값이 클수록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주요 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	측정 내용 및 방법
종속변수	삶의질 만족도	매우 불만족 : 1, 불만족 : 2, 보통 : 3 만족 : 4, 매우 만족 : 5
독립변수	개인위생관리 지원 서비스	해당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지,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합산 지표 -인지 여부 없음: 0, 있음 : 1 -이용경험 여부 없음: 0, 있음 : 1 -향후 이용 의향 없음: 0, 있음 : 1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돌봄비용 지원	
통제변수	성별	여성: 0, 남성: 1
	연령	만 연령 실측치
	교육수준	무학 : 1, 초등학교 : 2, 중학교 : 3, 고등학교 : 4, 대학교 : 5, 대학교 이상 : 6
	노인가구원수	가구 내 노인 1인 거주 : 0, 가구 내 노인 2인 이상 : 1
	사회보장급여	비사회보장가구 : 0, 사회보장급여가구 : 1
	연속거주기간	현 지역 만 연속 거주기간 실측치
	경제적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	매우 어렵다 : 1, 어려운 편이다 : 2, 보통이다 : 3, 여유로운 편이다 : 4, 매우 여유롭다 : 5
	주거 형태	단독주택, 아파트 : 0,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 이외 거처: 1
	주택점유 형태	자가 : 0, 자가 외(전세, 월세, 연세, 일세, 무상) : 1

###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인구 규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 20만 이상 ~ 50만 미만을 '중도시', 20만 미만 및 군 지역을 '소도시'로 구분하여 기술통계를 통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지역간 차이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지역별 주요 변수의 평균 및 차이의 유의성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분산의 동질성 검정결과 등분산 가정이 성립되지 않아서 Robust ANOVA Welch검정과 Games-Howell 사후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경기도 지역별 노인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서비스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동일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지역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지역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전체 연구대상 8,529명 중 여성이 47.7%, 남성은 52.3%로 남성의 비율이 높으며, 대도시 49.8%, 중도시 52.1%, 소도시 59.9% 순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층은 65~69세가 46.4%로 가장 많고 평균연령은 71.1세이다. 평균연령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크게 없으나 80세 이상의 노인 비율을 보면 대도시 10.4%, 중도시 13.4%, 소도시 14.6%로 소도시로 갈수록 고령 후기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전체 50.1%로 가장 많았고, 상대적으로 중졸 이하의 비율은 대도시 40.1%, 중도시 46.6%, 소도시 54.3%로 소도시의 중졸 이하 비율이 대도시 및 중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노인가구원수는 1명 거주 비율이 26.7%, 2명 이상 거주 비율이 73.3%로 2명 이상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보장급여 여부는 비급여가구가 전체 92.3%, 급여가 7.7%이며 중도시의 급여가구가 9.1%로 대도시 및 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 지역의 연속거주기간의 평균은 22.5년이며 대도시는 20년, 중도시 24년, 소도시 27.2년으로 소도시에서의 연속거주기간이 유의미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은 '보통이다'의 비율이 전체 62.6%로 가장 높았다. 한편 '매우 어렵다'와 '어려운 편이다'를 합산하여 어렵다고 판단한 비율을 비교해 보면 대도시 25.5%, 중도시 29.4%, 소도시 26.8%로 중도시가 대도시 및 소도시에 비해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전체 79.1%가 단독주택 및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점유형태는 자가 전체 89.5%, 자가 외가 10.5%로 나타났다.

교차분석을 통해 주거형태를 제외한 모든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분포가 각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지역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구분		전체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x <sup>2</sup>
		(명)	(%)	(명)	(%)	(명)	(%)	(명)	(%)	
전체		8,529	100.0	4,492	100.0	2,553	100.0	1,484	100.0	
성별	여성	4,071	47.7	2,254	50.2	1,222	47.9	595	40.1	45.490***
	남성	4,458	52.3	2,238	49.8	1,331	52.1	889	59.9	
연령	65~69세	3,960	46.4	2,252	50.1	1,086	42.5	622	41.9	129.764***
	70~74세	2,235	26.2	1,164	25.9	676	26.5	395	26.6	
	75~79세	1,305	15.3	607	13.5	448	17.5	250	16.8	
	80~84세	705	8.3	316	7.0	230	9.0	159	10.7	
	85세 이상	324	3.8	153	3.4	113	4.4	58	3.9	
	Mean(SD)	71.6(5.899)	71.1(5.723)	72.2(6.036)	71.6(6.060)					
교육수준	무학	147	1.7	69	1.5	49	1.9	29	2.0	112.821***
	초등졸	1,426	16.7	636	14.2	471	18.4	319	21.5	
	중졸	2,215	26.0	1,094	24.4	664	26.0	457	30.8	
	고졸	4,274	50.1	2,404	53.5	1,254	49.1	616	41.5	
	대졸	212	2.5	127	2.8	51	2.0	34	2.3	
	대졸 이상	255	3.0	162	3.6	64	2.5	29	2.0	
노인 가구원수	1명	2,278	26.7	1,228	27.3	703	27.5	347	23.4	10.186*
	2명 이상	6,251	73.3	3,264	72.7	1,850	72.5	1,137	76.6	
사회보장급여 가구	비급여 가구	7,870	92.3	4,180	93.1	2,320	90.9	1,370	92.3	10.864**
	급여 가구	659	7.7	312	6.9	233	9.1	114	7.7	
연속거주기간	0~10년	2,206	25.9	1,337	29.8	634	24.8	235	15.8	573.080***
	11~20년	2,174	25.5	1,189	26.5	594	23.3	391	26.3	
	21~30년	1,799	21.1	997	22.2	496	19.4	306	20.6	
	31~40년	1,105	13.0	542	12.1	358	14.0	205	13.8	
	41~50년	679	8.0	289	6.4	244	9.6	146	9.8	
	51년 이상	566	6.6	138	3.1	227	8.9	201	13.5	
	Mean(SD)	22.5(15.455)	20.0(13.578)	24.0(16.488)	27.2(17.385)					
현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	매우 어렵다	306	3.6	153	3.4	124	4.9	29	2.0	54.861***
	어려운 편이다	1,976	23.2	981	21.8	627	24.6	368	24.8	
	보통이다	5,340	62.6	2,816	62.7	1,555	60.9	969	65.3	
	여유로운 편이다	865	10.1	514	11.4	237	9.3	114	7.7	
	매우 여유롭다	42	0.5	28	0.6	10	0.4	4	0.3	
주거형태	단독주택, 아파트	6750	79.1	3,545	78.9	2,006	78.6	1,199	80.8	3.092
	연립, 다세대, 비주거용 건물 등	17,79	20.9	947	21.1	547	21.4	285	19.2	
주택점유형태	자가	7,630	89.5	4,016	89.4	2,225	87.2	1,389	93.6	41.386***
	자가 외	899	10.5	476	10.6	328	12.8	95	6.4	

주1: \*p<0.05, \*\*p<0.01, \*\*\*p<0.001

주2: 도시의 구분은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로, 인구 20만 이상 ~ 50만 미만을 중도시로, 인구 20만 미만 및 군을 소도시로 분류함.

##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노인가구의 돌봄서비스와 삶의 질 만족도 정도와 경기도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의 지역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노인 삶의 질 만족도의 평균은 3.35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 삶의 질 만족도가 3.36, 중도시 노인 삶의 질 만족도가 3.36, 소도시 노인 삶의 질 만족도는 3.28로 대도시와 중도시의 노인 삶의 질 만족도가 소도시의 노인 삶의 질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Games-Howell 사후분석 결과 지역 간의 삶의 질 만족도는 대도시와 소도시(a)c) 간에, 중도시와 소도시(b)c)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인 돌봄서비스 수준은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0.93,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 0.92,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0.89, 돌봄비용 지원 0.80, 개인위생관리 지원 서비스 0.68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위생관리지원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서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Games-Howell 사후분석을 토대로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돌봄서비스를 살펴보면,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는 중도시가 0.97로 대도시 0.9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b)a) 나타났다.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는 중도시가 1.03으로 가장 높고, 소도시가 0.96, 대도시가 0.84 순(b)c)a)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에 대한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급상황대처 서비스는 소도시 0.98, 중도시 0.96, 대도시 0.82 순으로 소도시가 대도시보다 높았고(c)a), 중도시가 대도시보다 높게(b)a) 나타났다. 돌봄비용 지원은 소도시 0.87, 중도시 0.87, 대도시 0.73으로 소도시와 대도시 간에(c)a), 중도시와 대도시 간에(b)a)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변수명		지역	M	SD	Welch P-value	Games-Howell
종속변수	삶의 질 만족도	전체	3.35	0.77	0.001	a)c, b)c
		대도시(a)	3.36	0.75		
		중도시(b)	3.36	0.80		
		소도시(c)	3.28	0.75		
독립변수	개인위생관리 지원 서비스	전체	0.68	0.79	0.494	-
		대도시(a)	0.69	0.79		
		중도시(b)	0.67	0.81		
		소도시(c)	0.69	0.75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전체	0.93	0.83	0.001	b)a
		대도시(a)	0.90	0.82		
		중도시(b)	0.97	0.84		
		소도시(c)	0.95	0.82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	전체	0.92	0.85	0.000	b)c)a
		대도시(a)	0.84	0.81		
		중도시(b)	1.03	0.89		
		소도시(c)	0.96	0.86		

변수명	지역	M	SD	Welch P-value	Games-Howell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전체	0.89	0.82	0.000	c>a, b>a
	대도시(a)	0.82	0.79		
	중도시(b)	0.96	0.85		
	소도시(c)	0.98	0.85		
돌봄비용 지원	전체	0.80	0.83	0.000	c>a, b>a
	대도시(a)	0.73	0.80		
	중도시(b)	0.87	0.86		
	소도시(c)	0.87	0.87		

### 3. 노인 돌봄서비스와 삶의 질 만족도와와의 관계

경기도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도시규모별로 노인의 돌봄서비스가 삶의 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된 가운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각 변수의 VIF값이 모두 2 이하로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대도시의 경우 삶의 질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효한 변수들을 영향력 순으로 살펴보면, 경제적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주택점유형태, 주거형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개인위생관리 지원 서비스, 교육수준, 돌봄비용 지원 순이었으며, 추정된 다중회귀식의 설명력은 17.3%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변수 중 경제적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 교육수준, 돌봄비용 지원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점유형태, 주거형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개인위생관리 지원 서비스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라고 생각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돌봄비용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형태가 단독 및 아파트일수록, 주택이 자가 소유의 경우 삶의 질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도시의 경우에는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 돌봄비용 지원, 주거형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주택점유형태, 노인가구원수 순으로 삶의 질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중회귀식의 설명력은 18.7%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변수 중 경제적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 돌봄비용 지원, 노인가구원수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형태, 주택점유형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라고 생각할수록, 돌봄비용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단독 및 아파트에 거주하고, 주택이 자가 소유의 경우, 2인 이상 노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도시의 경우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효한 변수들을 영향력 순으로 살펴보면,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 연속거주기간,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연령, 교육수준, 노인가구원수 순이었으며, 다중회귀식의 설명력은 12.7%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변수 중 경제적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 연속거주기간,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노인가구원수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교육수준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이 여유로운 편이라고 생각할수록, 지역에서 거주기간이 길수록,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수준이 높을수록, 2인 이상 노인

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삶의 질 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상을 근거로 노인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지역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인 돌봄서비스 수준을 중심으로 노인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와 중도시에서는 돌봄비용 지원이 노인 삶의 질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소도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도시에서는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도시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중도시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도시, 중도시에서는 서비스보다는 돌봄비용 지원이 유의미함을 알 수 있으며, 소도시에서는 건강 및 재난 관련 응급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처 서비스가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는 대도시와 중도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개인위생관리 지원 서비스와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는 대도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는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정서적 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손화희·정옥분, 1999)와 재가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윤기윤, 2008),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안은선·송순만, 2017)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서비스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 저소득층 및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선별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 돌봄서비스 이용대상의 선별성과 예방적 접근이 아닌 사후 지원적 성격이 강한 현 돌봄서비스의 한계로 인해 삶의 질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저소득층이 주로 수급 대상인 소득보장 및 취업 관련 사업과 노인요양시설, 요양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많은 노인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고, 반면 노인 여가 서비스나 교통요금할인, 우대할인제도 등 보편적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많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온 연구 결과(김철수·유성호, 2009)와 일치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노인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은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모든 지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모든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연령은 대도시와 중도시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도시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질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나 중도시에 비해 소도시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80세 이상 후기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교육수준은 대도시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도시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노인가구원수는 대도시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도시와 소도시에서는 2명 이상 거주하는 가구가 삶의 질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급여

여부는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속거주기간이 길수록 소도시에서 노인 삶의 질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도시와 중도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형태와 자가소유 여부는 대도시와 중도시에서는 노인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도시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소도시에서는정주기간에 비례하여 이웃과의 관계, 소속감과 유대감 등이 향상되는 지역공동체성이 노인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대도시와 중도시에서는 도시문화의 영향으로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주택과 아파트의 거주 및 소유가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에서의 돌봄서비스 수준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노인 삶의 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돌봄서비스 접근에 있어서 지역 간 차이와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영향력 차이를 고려하여 차별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5〉 노인 돌봄서비스와 삶의질 만족도와의 관계

구분		대도시(N=4,492)			중도시(N=2,553)			소도시(N=1,484)		
		B	$\beta$	t	B	$\beta$	t	B	$\beta$	t
독립변수	개인위생관리 지원 서비스	-0.037*	-0.038	-2.479	-0.009	-0.009	-0.443	-0.031	-0.031	-1.062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0.070***	-0.076	-4.625	-0.084***	-0.088	-4.005	-0.053	-0.058	-1.871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	0.006	0.006	0.390	-0.022	-0.025	-1.092	-0.041	-0.047	-1.480
	응급상황 대처서비스	-0.069***	-0.072	-4.478	0.014	0.014	0.639	0.068*	0.076	2.356
	돌봄비용 지원	0.029*	0.031	1.979	0.097***	0.104	4.961	0.049	0.056	1.806
통제변수	성별	-0.002	-0.002	-0.113	0.023	0.014	0.758	-0.007	-0.005	-0.183
	연령	0.004	0.030	1.890	0.002	0.017	0.804	-0.009*	-0.075	-2.532
	교육수준	0.027*	0.034	2.018	-0.008	-0.010	-0.449	-0.054*	-0.069	-2.192
	노인가구원수	0.033	0.020	1.416	0.123***	0.069	3.775	0.101*	0.057	2.299
	사회보장급여	-0.065	-0.022	-1.445	-0.108	-0.039	-1.945	0.027	0.009	0.339
	연속거주기간	0.000	0.002	0.173	0.002	0.037	1.912	0.005***	0.105	4.014
	경제적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	0.343***	0.313	20.377	0.393***	0.343	17.308	0.378***	0.307	11.779
	주거 형태	-0.151***	-0.082	-5.952	-0.192***	-0.098	-5.411	-0.020	-0.011	-0.434
	주택점유 형태	-0.153***	-0.087	-5.730	-0.155***	-0.083	-4.202	-0.104	-0.050	-1.843
	constant	2.176***	-	11.926	2.102***	-	8.415	2.892***	-	8.769
F	68.284***			42.805***			16.399***			
R2	0.176			0.191			0.135			
Adjusted R2	0.173			0.187			0.127			

주1: \*p<0.05, \*\*p<0.01, \*\*\*p<0.001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21년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지역주민 욕구조사)를 활용하여 경기도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에서의 돌봄서비스 수준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노인 삶의 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지역간에 주거형태를 제외한 성별, 연령, 교육수준, 노인가구원수, 사회보장급여가구, 연속거주기간, 현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 주택점유형태 모든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층은 65~69세가 46.4%로 가장 많고 평균 연령은 71.1세이다. 평균연령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크게 없으나 80세 이상의 노인 비율을 보면 대도시 10.4%, 중도시 13.4%, 소도시 14.6%로 소도시로 갈수록 고령 후기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 지역의 연속거주기간은 대도시는 20년, 중도시 24년, 소도시 27.2년으로 소도시에서의 연속거주기간이 유의미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은 '보통이다'의 비율이 전체 62.6%로 가장 높았다. 한편 '매우 어렵다'와 '어려운 편이다'를 합산하여 어렵다고 판단한 비율은 대도시 25.5%, 중도시 29.4%, 소도시 26.8%로 중도시가 대도시 및 소도시에 비해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노인 돌봄서비스와 노인 삶의 질 만족도는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대도시가 소도시에 비해, 중도시가 소도시에 비해 삶의 질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돌봄서비스 수준에서는 개인위생관리 지원 서비스는 지역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가사 지원 서비스는 중도시가 대도시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는 중도시, 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는 소도시와 대도시 간에, 중도시와 대도시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돌봄비용 지원은 소도시가 대도시보다 높고, 중도시가 대도시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노인 돌봄서비스와 노인 삶의 질 만족도와 관계는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지역별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들을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에는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다고 생각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돌봄비용 지원이 많을수록 삶의 질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점유형태, 주거형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개인위생관리 지원 서비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시의 경우에는 경제적 상황과 돌봄비용 지원은 대도시와 동일했으며, 노인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소도시에서는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다고 생각할수록, 노인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가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임을 고려할 때, 돌봄서비스는 노인 삶의 질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노인 돌봄서비스 중 돌봄 비용 지원은 대도시와 중도시에서,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는 소도시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이라는 선별적 서비스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현 제도상 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려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돌봄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두 상황 모두 노인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노인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서비스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중도시 및 소도시 노인 삶의 질 만족도 향상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대도시와 중도시에서 노인 삶의 질 만족도 평균이 소도시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개인위생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 수준의 평균은 대도시보다 중도시 또는 소도시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 이용경험, 이용의향이 대도시에 비해 중도시 및 소도시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중도시 및 소도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별 노인의 돌봄 욕구 및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 돌봄서비스의 보편화 및 통합적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돌봄서비스 대부분은 소득과 질환 여부 등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정 조건에 부합될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돌봄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고령화 및 가족형태 변화 등 돌봄의 사회화와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가기(Aging In Place)를 원하는 노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 방향으로, 대상자의 선정 조건 없이 읍면동에서 이용자의 욕구 판단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기대했던 주거, 보건 등 타 부문 간 연계 등 아쉬운 부분이 있었으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의 방향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노인 욕구 및 서비스 필요를 토대로한 통합적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노력은 현재 파편화되고 선별적인 노인 돌봄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노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돌봄서비스의 선택권 확대 및 급여 제공 방식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도시와 중도시에서는 돌봄비용 지원이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돌봄서비스는 도서·벽지 등 서비스 제공 기관 부족 지역에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물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돌봄비용을 지원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돌봄서비스 인프라가 풍족한 대도시와 중도시에서는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자바우처를 통해 지불하는 방식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 지자체 특성 및 새로운 수요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바우처를 이용한 돌봄비용 지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적 확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돌봄서비스 품질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소도시 노인을 위한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노인들은 응급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특히 소도시는 가

구간 거리가 멀고 병원, 소방서 등 응급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다. 현재 독거노인가정에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나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2023). 그러나 이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노인부부 세대, 조부모와 손자녀 구성 세대 등은 응급상황대처 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소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돌봄서비스 인지 및 이용 확대를 위한 충분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 다양하고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서면을 통한 정보 전달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주지역과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및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등 대면을 통한 직접적인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 여부가 이용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돌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노인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서비스의 지역 간 차이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는 경기도에 국한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적이므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등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유진·강효진. (2005).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28: 255-294
- 강은택·정효미. (2015). 노인가구의 주거특성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주거환경」, 13(1): 109-121
- 고명철. (2013).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지역사회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미국 스폴스시의 경험적 증거를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 243-270
- 고찬우·황병목·임도혁·고동욱·강완모. (2023). 국내 전국 시·군과 도시 인구규모별 녹지 접근성 평가 - 보행특성 기반의 네트워크 분석의 적용 -. 「한국지역정보학회지」, 25(1): 146-160.
- 권인혜. (2022). 정주공간 유형별 다면적 삶의 질 비교.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권현정.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상노인 및 부양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이(DD) 결합모형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3(4), 301-326.
- 김남훈·하인혜. (2020).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명일·이은진·김준표. (2019).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수준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30(2): 141-161.

- 김미령. (2006). 전기,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및 영향요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2): 197-222.
- 김수봉·고재욱. (2011). 장애인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비교분석 -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장애인복지학」, (16), 171-186.
- 김수봉. (2009).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 133-146.
- 김수현·강현정·김윤정. (2008). 농어촌 여성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3), 51-71.
- 김재희. (2023). 제주지역 노인의 객관적 및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 「濟州島研究」, 59, 203-237.
- 김재희·김희연. (2020). 노인의 재가노인돌봄서비스 이용의사 영향요인 연구: 경기도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0(3), 43-72.
- 김진훈. (2019). 노인가구 노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 339-349.
- 김철수·유성호. (2009).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社會科學研究」, 25(4), 51-73.
- 김현우. (2023). 노후보장제도 기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예명대학 원대학교 박사논문.
- 김혜연. (2020). 성별 및 연령 집단별 주관적 삶의 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4(2): 47-72.
- 김희연·유병선. (2022). 경기도민 삶의 만족 영향 요인 분석. 「지방행정연구」, 36(4), 313-335.
- 남기민·남현정. (2013). 노인의 주거환경 만족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4(3), 395-420.
- 류주연·선민정. (2022).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이행유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성별과 연령의 조절효과. 「노인복지연구」, 77(2), 9-32.
- 문용필·이준영. (2016). 중·고령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사 영향요인 분석: 베이비부머와 노인 집단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2(3): 59-92.
- 박세경·강혜규·이윤경·김진우·이진면·장은진. (2011). 유망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배정희·윤옥화. (2014). 도서지역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8(2), 315-334.
- 배화숙. (2011). 가구유형별 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경험과 영향요인 연구. 「사회과학연구」 27(3): 1-24.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안내.
- 서소영·장숙량. (2022). 지역사회 노인대상 간호사 방문형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 및 적정지불금액.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2.1: 105-119.
- 석재은. (2017). 「지역주도 노인건강돌봄사업의 기본구상」. 한국노인복지학회학술대회.

- 소영미·이외승. (202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경험이 노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경영연구』, 9(2), 183-202.
- 손신영. (2006). 농촌 노인과 도시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26(3) : 601-615.
- 손화희·정옥분(1999). 재가복지 수혜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한국노년학』, 19(1), 83-103
- 송건섭. (2007). 지역수준별 주민복지와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1(3): 35-52.
- 송기영. (2018). 노인의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73(1), 469-503.
- 순덕기. (2023).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우울증의 매개효과 -. 『한국과학예술통합학회』, 41.1 : 221-237.
- 안수란·오욱찬·이상정·이윤경·이윤경. (2022). 2022년 사회서비스정책의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303(0), 56-72.
- 안수란·이주민·서윤경·김유휘·어유경·정세정·박세경. (2021).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은선·송순만. (2017). 저소득층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갈등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5(10), 9-18.
- 양재진·이호연·이정주. (2016). 한국 노년층의 삶의 만족과 행복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75-102
- 오승환·윤동성. (2006). 노인의 삶의 질 특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2), 119-147.
- 오정숙. (2019).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활동과 자아통합감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0(1), 87-111.
- 윤기윤. (2008).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신학대학교 박사논문.
- 이기영·이한옥·배은석·박해금·장연미. (2007). 지방 중소도시 거주 노인의 요양시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경남 양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0.4 : 175-194.
- 이미애. (2009). 장기요양보호노인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거주지역간 변이. 『노인복지연구』, 44.71-88.
- 이석환. (2021).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 수혜 노인의 삶의 질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3(4), 87-111.
- 이재모·이신영. (2006). 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2: 203-222.
- 임연옥·윤현숙. (2009). 노인의 노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노년학』, 29(3): 1063-1085.
- 임연옥. (2016). 친숙한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늙어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농촌과 도시 거주 노인 간 Aging in Place 모델과 경로 비교 분석. 『노인복지연구』, 71(3), 411-436.
- 전병주·최은영. (2015). 노인의 사회적 배제 특성, 주거 점유형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 사회적관계망의 완충효과: 배우자 유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1), 77-107
- 전병주·한애경. (2014). Anderson 모형을 이용한 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 예측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12.8 : 19-27.
- 조경옥·이주연·전아람. (2021). 전북 초고령사회 대응 : 노인돌봄 실태 및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활성화 방안. 전북연구원.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2018). 지역주민욕구조사 조사 지침서.
- 진재문·김수영. (2016). 부산시 독거노인의 빈곤유형별 삶의 질 및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에 관한 연구: 맞춤형복지 빈곤유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1), 327-354.
- 통계청. (2023). 「국민 삶의 질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 보고서.
- 통계청. (2023). 2023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 황경란·김은하·최성은. (2022).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품질관리방안 모색 연구. 경기복지재단.
- 황경란·최성은. (2022). 경기도노인정책분석. 「복지이슈포커스」, 제31호 : 18-19.
- 황경란·최성은. (2022).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쟁점과 경기도 과제. 「복지이슈포커스」, 제9호 : 18-19.
- Blomquist, G., Berger, M., Hoehn, J.(1988). New estimates of Quality of Life in Urban Areas. American Economic Review, 78, pp.89-107.
- Schalock, R.L. and MA Verdugo(2002). Handbook on quality of life for human service practitioners, Washington DC: The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http://www.gg.go.kr)

임복희(任福姬): 경기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팀장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역사회보장, 거버넌스, 돌봄 등이다. (happysnail@daum.net)

박윤환(朴尹煥): 2007년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에서 정치경제 및 정책학(Political Economy and Public Policy)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 논문 제목은 “The Relationship between Suburbanization and Crime in U.S. Metropolitan Areas”이다. 텍사스주 델러스 시청(City of Dallas)에서 인구통계분석관(Demographic Research Analyst)과 텍사스 교육연구소(Texas Education Research Center)의 Texas Schools Project에서 연구원(Research Scientist)을 역임하였다. 2009년부터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연구 관심 분야는 도시정책으로 특히 빈곤, 주택, 이민, 범죄, 사회계층, 거주지 분리 등이다. 논문으로는 “우리나라 빈곤층 거주지 집중과 분리의 공간적 패턴: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의 활용을 중심으로”(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ial Distribution of Immigrants and Crime in South Korea”(2018), “Determinants of Economic Segregation and Spatial Distribution of Poverty”(2019) 등이다. 대표 저서로는 “도시행정: 뉴노멀시대의 패러다임 전환”(2022)과 “쉽게 쓴 사회과학기초통계”(2023) 등이 있다. 수상으로는 2020년 9월 1일 통계의 날에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제224886호)을 받았다. (ypark@kgu.ac.kr)

## Abstract

### The effect of care services on the satisfaction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group :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large cities, middle cities, and small cities in Gyeonggi Province

Im, Bok-heui

Park, Yoon-wh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regional differences by dividing the impact of care services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to large cities, middle cities, and small cities according to the population size of 31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 province. For the analysis,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8,529 households aged 65 or older from the 2021 Gyeonggi-do Community Security Survey. Subjective judgment, education level, and care cost support have a positive (+) effect on economic conditions in large cities, and housing occupancy, housing activities, emergency response services, and personal hygiene management support services have a negative (-) effect. In the case of intermediate cities, subjective judgment on the economic situation, support for care costs, and the number of elderly household members have a positive (+) effect, and housing types, housing occupancy types, and domestic activity support services have a negative (-) effect. In small cities, subjective judgments on economic conditions, duration of continuous residence, emergency response services, and the number of elderly households have a positive (+) effect, and age and education level have a negative (-) effec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ed to analyze regional differences in care services that affect the satisfaction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centering on local governments in which policies are implemented in detail.

Keywords: Comparison of care services,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Gyeonggi Province, Large cities, Middle cities, Small cities, Regional comparisons

